영어어문교육 *제29권* 4호 2023 겨울
https://doi.org/10.35828/etak.2023.29.4.149

제인 정 트렌카의 『덧 없는 환영들』에서 재현된 귀환 입양인의 정체성 양상

차민영
(단국대학교)

Cha, Minyoung. (2023). Aspects of identity of a returned adoptee presented in Jane Jeong Trenka's *Fugitive Vision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9*(4), 149-164.

This study explores the aspects of psychological conflict and alienation experienced by a returned adoptee due to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home country in Jane Jeong Trenka's *Fugitive Visions*. *Fugitive Visions* shows how Trenka, who finally moved to Korea after visiting Korea several times and lives in Seoul, cannot be absorbed into Korean society as she is neither a foreigner nor a *Jaemigyopo*. Trenka believes that the reason is the difference in language and culture. Ironically, the distance from their home country cannot be close due to limitations in communication and a heterogeneous culture. Also, *Fugitive Visions* goes beyond the personal history of an overseas adoptee and talks about Korea's past, present, and future by reflecting on the self-portraits of other returned adoptees who have become parts of the evidence of Korean history. Overseas adoption should not be ignored. When we remember it and accept returned adoptees as members of our society, a multicultural educational foundation can be settled for realizing the ultimate transnationalism we pursue. In addition, English education that deals with literary texts showing various aspects of multiculturalism can have educational implications in broadening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and listening to minority voices.

[Jane Jeong Trenka/*Fugitive Visions*/returned adoptee/transnationalism/multicultural English education, 제인 정 트렌카/『덧 없는 환영들』/귀환 입양인/초국가주의/다문화 영어교육]

I. 서론

최근 한 입양인이 정부와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김종용, 2023). 원고는 아담 크랩서, 한국명 신성혁으로 40년전 미국으로 입양되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강제 추방된 해외입양인이다. 한국계 출신의 미국인 유명 배우가 연출과 주연을 맡은 영화의 실제 인물이기도 한 신성혁은 한국에서 위조된 고아 호적으로 미국에 입양된 후 여러 차례 입양과 파양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그를 부르는 이름은 여섯 개가 되었고 입양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폭력은 일상이 되었다. 결국, 아동학대로 양부모가 구속되자 그는 하루아침에 무연고의 불법체류자의 신세가 되었다. 양부모는 집으로 찾아온 신성혁을 신고했고 이 사건으로 그는 전과자가 되어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 아내와 딸을 미국에 남긴 채 강제추방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신성혁은 과거 자신의 입양 기록이 위조와 날조였다는 것에 분노하여 홀트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판결이 나는데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입양기관의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기각하면서 해외 입양에 대한 국가적 망각의 현실을 재확인시켜주었다.

해외 입양의 역사에서 한국은 가장 많은 입양아를 국외로 보낸 나라이다. 한국전쟁 이후 고아와 난민을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세계 곳곳으로 보내기 시작한 한국의 해외 입양은 이주와 왕래가 단절되었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이어져 2019년 세계 7에서 1년 뒤 3위에 올랐다(김준영, 2022). 여기 5세가 되기 전 미국으로 입양되어 미국인의 삶을 살다 모국으로 귀환한 한 여성 작가가 있다. 제인 정 트렌카(Jane Jeong Trenka)는 해외 입양의 문제와 인권을 위해 분투하는 인권활동가이면서 입양인의 자전적 삶을 기록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녀의 첫 번째 작품, 『피의 언어』(*The Language of Blood*, 2003)는 아시아계 입양인 여성으로 미국에서 성장한 과정과 생모를 찾아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겪었던 생소한 경험들을 개인적인 서사로 풀어간다. 두 번째 작품인 『덧 없는 환영들』(*Fugitive Visions: An Adoptee's Return to Korea*, 2009)[1]은 몇 차례의 고국 방문 후 한국으로 이주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시점의 회고록이다. 전작인 『피의 언어』에서 트렌카는 자신의 입양사를 통해 모국에 대한 산재된 기억과 그리움, 유아기에서 성년기의 생애를 점령했던 국가 간, 인종 간 입양의 트라우마를 고발하는데 집중했다면 『덧 없는 환영들』은 다양한 예술적 요소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문학 텍스트이다. 『덧 없는 환영들』은 일인칭 시점으로 모국과 이주지로써 한국에 대한 애정과 비판이 여러 단상을 통해 나타난다. 귀환한 이후에도 입양국과 모국 사이에서 수평적 타자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해외 입양인 특유의 고독과 우울감은 『덧 없는 환영들』에 천착한 입양의 상흔이다. 이 중심에 한국 민족주의의 부당함을 오롯이 홀로 대응해야 하는 귀환한 입양인이

[1] 본 연구에서 *Fugitive Visions: An Adoptee's Return to Korea*의 한글 제목은 2013년 이일수에 의해 번역된 『덧 없는 환영들』을 빌어 명기하기로 한다. 단, 논문의 분석 텍스트는 트렌카의 영어원문으로 한다.

있다.

『피의 언어』에서 한국은 트렌카에게 모국이지만 생모의 나라이거나 여행자의 목적지로 그려진 모습에 가까웠다면 『덧 없는 환영들』에서의 한국은 더 이상 방문이 아닌 정착을 위해 절실한 생존의 각축이 벌어지는 곳이다. 특히, 한국은 한국인 외모에 한국어 의사소통에 서툰, 그러면서도 재미교포는 아니라고 하는 이 여성을 기이하거나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녀에게 투사되는 모국의 각종 편견과 오해, 차별과 낯선 시선은 입양국에서 겪었던 인종 문제와는 또 다른 양상이다. 귀환 입양인은 한국 사회에서 외부인의 취급을 받거나, 잊혀지거나 외면당한 존재로 여겨진다. 이처럼 『덧 없는 환영들』의 입양인에게는 『피의 언어』에서 보여진 설렘과 기대 심리 등의 모국 이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덧 없는 환영들』은 전편에 비해 보다 해외 입양에 대한 시선의 범위를 확대한다. 트렌카 개인의 입양사를 넘어 해외 입양인, 특히 귀환 입양인 공동체의 현실을 묘사하며 해외 입양인 문제는 한국 역사의 일부로 공존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간접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면서도 트렌카는 객관적이며 비판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국으로 귀환한 해외 입양인들의 삶을 조명한다. 때때로 냉소적이고 자조적인 분위기가 귀환한 입양인의 부정적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이내 자신과 주변의 힘없는 마이너리티에게 존재의 가치를 밝히며 그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격려한다.

무엇보다 『덧 없는 환영들』은 한국인에게 내재화된 단일민족 신화와 그러면서도 미국을 맹목적으로 선망하며 영어를 배우는 한국의 현실을 풍자한다. 트렌카의 입양 서사는 '우리 민족'이 만들어 낸 시대적 허용, 면죄, 배척과 망각을 드러낸다. 수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팔아 치우며 돈벌이를 하던 '우린 민족'의 현대사는 시대적 허용과 면죄 속에 가려져 있고, 수십년이 지난 오늘 날에는 그렇게 보낸 아이들을 외면하거나 기억에 가둔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덧 없는 환영들』은 그렇게 미국과 유럽의 각국으로 보내진 아이들이 귀소본능으로 모국을 찾아왔을 때 그들을 대면하는 우리의 가식과 오만함을 고발한다. 귀환한 입양인들은 모국과 입양국 사이의 경계인이자 어느 곳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방인이 된다.

초국가와 지구화라는 표현이 진부하게 들리는 오늘날 트렌카가 호소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의 결핍에 대한 비판과 다문화 감수성의 한계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트렌카는 이러한 문제를 문학적 예술성으로 승화시켜 인종, 국가, 공동체에 대한 보편적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은 EFL 교육환경에서 문학은 깊이를 제공하는 언어 학습이 될 수 있다(한상택, 2001). 최근 많은 영어교육의 목적이 의사소통능력을 강조하는 것에 집중되어 피상적인 의사소통 언어 교육에 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일정 수준의 영어 독해 능력을 갖춘 대학생들을 상대로 영문학 텍스트를 읽는 것은 듣고 말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영문학 텍스트를 읽으며, 흥미로운 내용에 자

신의 내적, 외적 경험을 연관시키게 된다. 나아가 적극적인 학습동기를 유발하며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무엇보다 문학 텍스트는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그에 따른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수용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덧 없는 환영들』이 영미문화 중심으로 인식해온 소수민족 담론이나 다문화 감수성의 문제의식을 우리 나라의 실상으로 옮겨왔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지력과 상상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트렌카의 회고록을 대학 강의에서 읽는 것은 영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영어능력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초국가 공동체로 세분화 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계 미국인이자 한국 현대사의 증인인 트렌카의 회고록, 『덧 없는 환영들』 은 초국가 다문화주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타당한 영문학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해외 입양 문학과 트렌카에 대한 국내의 연구 동향에 대해 살피고, 트렌카의 『덧 없는 환영들』에서 재현된 귀환한 해외 입양인의 외부인으로서의 존재감과 그로인한 심리적 갈등의 양상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 또한, 영문학 텍스트의 언어와 다문화 교육의 타당한 근거도 살필 것이다.

II. 입양 문학과 트렌카에 대한 연구 동향

트렌카는 자신의 입양 서사를 통해 입양인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생의 실존적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에 대한 논의 역시 입양의 구조안에서 인종, 젠더, 계급, 문화의 이분법적 권력의 억압과 저항을, 입양 디아스포라와 트라우마를, 친생모와 입양부모와의 비교를 통한 애착과 애도의 정신분석학적 접근이 시도되어 왔다.

입양 연구에 대한 비약적 성장에 대해 이소희(2015)는 2000년대 초반의 국내외의 연구 동향을 예로 든다. “1990년대에 들어서 미국 내 초국가 입양인의 누적 수가 14만 명에 이르러 입양인과 관련된 이슈가 늘어났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2000년대 이후 학문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는것이다”(p. 200). 세계 초일류의 입양국가인 미국에 입양 아동수의 급진적인 증가가 증명하듯 미국 내의 입양의 역사와 입양인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미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내외의 아시아계 미국 문학 학술대회에서 “초국가 입양”은 발표와 토론의 핵심 주제가 되었고, 특히 한국계 입양인들의 “자전적 내러티브는 아시아계 미국 문학 분야에서, 더 세부적으로 입양 문학 분야에서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학문연구 주제로 부상”했다(이소희, 2015, p. 200).

그간의 트렌카의 입양 문학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문학비평과 문화, 정치, 사회, 역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녀의 내러티브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자전적 회고록이기 때문에 상호텍스트적인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2008년

민은경은 「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에서의 딸의 교환」을 통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낳은 해외 입양 시장의 모순과 피해를 분석하였으며, 최근의 논문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바탕으로 입양아동들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와 애도할 권리에 대해 짚으며 입양인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구체적 솔루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소희는 입양인 다큐멘터리를 다룬 연구에서 모국과 입양기관에 의해 위조된 개인의 역사로 인해 모국과 입양국 사이에서 겪는 혼란스러운 한국계 미국인 입양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진월은 해외 입양인 출신 여성 작가들에 대한 연구에서 타자에서 주체로 귀환하는 여성 입양인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박정진은 입양인 문학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며 나아가 인종적 특징과 모성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양상을 살핀다.

국가와 인종 간의 입양 내러티브는 인종적 특징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소속과 국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체성의 충돌을 문제 삼는다. 이러한 차이는 바바(Homi K. Bhabha)의 문화의 간극, 혹은 틈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급진적이며 위험한 가능성이 공존한다(Kalra 외, 2014). 바바에 따르면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 사이에 생긴 틈에서 벌어지는 혼종의 현상은 경계 너머로 일어날 수 있는 도전과 가능성이 공존하는 과도기적인 공간이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사이 공간에서는 입양인이 체화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경계와 협상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하고 있다.

트렌카의 회고록에는 입양국과 모국 사이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거지는 사이 공간에서의 이중적 정체성에 대한 고뇌가 깔려 있다. Kalra 외(2014)는 “모든 이종 문화의 상호작용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두 언어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긴장”이며, 이때 언어는 “격식을 차린[형식적인] 구어가 아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있어 은유적인 기초를 의미”임을 강조한다(p. 90). 트렌카가 언어와 문화에서 겪는 일상적 소통의 한계는 그녀의 정체성과 신분에 은유적 메시지를 가하는 역할을 한다.

트렌카의 『덧 없는 환영들』은 『피의 언어』 이후 고국에 대한 귀환을 결정하며 보이는 트렌카의 심리적 상태를 보여준다. 특히, 한국으로 이주한 입양 여성이 마주한 낯선 문화와 언어로 모국의 영토에서 타자화 된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한국인으로 동일하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 의사소통과 인식의 차이로 이방인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귀환한 입양인 여성에게 한국은 친생모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적 개인적 공간으로써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Ⅲ. 기괴하고 낯선 존재, 귀환 입양인

『덧 없는 환영들』은 생후 6개월에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 제인 정 트렌카,

한국명 정경아가 미국에서 성장 후 한국으로 돌아와 겪는 삶의 이야기이다. 30여년이 지난 2007년 한국에서 살기로 마음먹은 트렌카는 한국인들에게서 자신의 정체에 대한 무수한 질문을 받는다. 돌아온 한국인 입양인에게 어쩌다 한국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묻는 한국인들에게 트렌카는 한국인이 말하는 한국인이 가져야 하는 한국인의 특성이 제거된 사람이지만 그녀는 한국을 사랑한다고 답한다. 십년사이 여섯 번을 한국을 방문하고 이혼 후 홀로 한국행을 결심했지만 이 땅의 한국적인 모든 것이 밤마다 미국과 관련된 꿈을 꾸게 만든다. 『덧 없는 환영들』은 러시아의 음악가 프로코피예프(Sergei Prokofiev)[2]의 피아노곡 제목, 「덧 없는 환영들」을 가져온 것이다. 회고록을 구성하는 모든 장은 「덧 없는 환영들」의 악장으로 저자의 이야기는 이 피아노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 옥스버그 대학(Augsburg University)에서 영문학과 피아노를 전공한 트렌카에게 피아노는 입양의 굴레에서 내성적인 자신을 표현하던 도구로, 「덧 없는 환영들」은 트렌카가 완성하고 싶어했던 피아노 연습곡이다.

양모의 권유로 시작한 피아노였지만 성장하며 언어 대신 피아노가 그녀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었고 그녀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 피아노는 미국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도구였고 자신의 결핍과 결함의 대상이기도 했다. 이처럼 피아노는 트렌카에게 미국의 입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벗어나고 싶은 대상이기도 했지만 심리적 도피처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트렌카는 “내가 미국을 마지막으로 출국하던 날의 이미지는 남자 셋이 뚜껑, 다리, 페달을 떼고 퀼트 천으로 싼 나의 검은색 그랜드피아노를 현관문 앞으로 내놓는 모습이다”(Trenka, 2009, p. 96)[3]라고 말하며 피아노를 통해 미국 입양이 마침표를 찍는 날로 기억한다. 동시에 피아노로 입양을 재기억한 트렌카는 피아노 건반을 고아가 누워있는 침대로 연상하며 프로코피에프를 다시 연주한다. 그녀는 삶의 해답을 음악에서 찾으려는 이유에 대해 음악의 선행악절과 후속악절의 조화로움이라고 말한다. 부름과 응답과 같은 음악의 구성은 인생의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연주곡은 『덧 없는 환영들』에서 입양서사를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트렌카는 “작곡가가 쉽지 않은 결말을 썼다 해도 우리는 그가 정한 음들을 여전히 연주해야 하는 것처럼, 인생은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해결해야 하고, 그 숨은 논리를 찾아야 한

[2]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Sergei Prokofiev, 1891~1953)는 현대 러시아의 대표 작곡가로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지주출신배경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껴 미국으로 망명했으며, 그 후 다시 프랑스로 이주했다. 프랑스에서 생활할 당시 유럽 음악계를 지배했던 모더니즘에 신물을 느껴 20여년간의 서방에서의 망명 생활을 끝으로 고국 러시아로 돌아갔다. 「덧 없는 환영들」(“Fugitive Visions”)은 프로코피예프의 작품 22번의 표제로 스무 개의 짧은 피아노곡으로 구성된 연주곡이다. 이 작품은 일부만 연주하거나 순서를 바꿔 연주하기도 한다.

[3] 앞으로 이 책의 인용은 페이지 표시만 한다.

다”(p. 111)라고 말하며 한국에서의 정착을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트렌카는 프로코피예프의 망명과 태평양을 횡단하는 입양인의 삶 사이 에서 유사한 지점을 찾는다. 망명을 결심한 프로코피예프에게 그의 친구는 “자넨 역사로부터 도망치는 걸세. 그리고 역사는 자네를 용서하지 않을 거네. 자네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자네를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p. 63)라며 러시아를 탈출하는 그를 비난한다. 고국과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아이를 받아준 것은 미국과 그녀의 양부모이며 삶의 반려자도 미국에서 만난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었다. 함께 입양간 언니 캐롤(Carol)이 미국생활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프로코피예프가 고국을 버리고 서구의 국가를 선택해 비난을 받은 것처럼 트렌카의 한국행은 합당하지 않으며 그 횡단의 원인은 트렌카 자신의 문제일 수 있음을 보인다. 스무 개의 짧은 피아노곡인 「덧 없는 환영들」은 일부만 연주하기도 하고 순서를 바꾸어 연주를 해도 무방한 작품으로이다. 마찬가지로, 모두 21개의 소재목이 있는 9장 구성의 『덧 없는 환영들』 역시 어느 부분부터 읽어도 상관없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특징은 두 문화 사이를 오간 입양인의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내면세계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덧 없는 환영들』은 입양인 트렌카의 단상의 기록으로 그녀의 의식이 머무는 순간 이야기가 시작되고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뒤를 잇는다.

> 기괴하고 낯선 존재인 타자로부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외부인임을 알게 되고, 우리가 타자들과 함께 살려고 시도할 수 있는 것도 타자성이 제공하는 도움이 있어서이다. (Kristeva, 1994, p. 170)

트렌카에게 서울은 익숙해 보이지만 낯설고, 거주지로 정착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것 같은 고유성과 임시성이 공존하 는 장소이다. 모국으로 이주했지만 애초에 시작된 입양 디아스포라는 이 곳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토록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했던 트렌카는 서울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담담한 입장을 취한다. 그녀에게 서울은 영구적인 안식처로 보이지 않으며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곳으로 과거 미국에서 만든 모국 프레임에서 벗어난 의미만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서울은 “거대한 전환기에 놓인 개인의 고유한 장소”(이일수, 2019, p. 129)로 재탄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트렌카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개인의 삶이 추구되고 있는 오늘날 고유한 장소에 대한 발원과 의미는 불명확하다. 그 이유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렌카의 서울은 “자신의 집에 있다는 확실성”이 없는 상태, 즉 “집 없음, 추방, 난민의 상태”를 상징한다(이일수, 2019, p. 130). 입양 디아스포라의 종착이 될 것 같았던 모국으로의 귀환은 트렌카에게 또 다른 디아스포라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제공한다. 서울로 이주한 트렌카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제 논의의 중심은 백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백인 이야기는 그만하자.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식민화의 징후이다.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 맞추자.
>
> 한국은 스스로 인종적으로 단일하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 나의 가족은 유색인이 아니다. 그들은 한국인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마음을 쓰는 사람들도 모두 한국인이다. 한국에서는 나의 가족이 소수자도, 이민자도, 아시아계 미국인도 아니다. 한국의 내 형제자매는 한국 사람 사이에서 자랐다.
>
> 한국에서 나는 예쁘다. 대부분 수술을 해서 만드는 탐나는 쌍꺼풀을 엄마에게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 한국에서 나는 별나게 작지도 않다. 그래서 몸에 맞는 옷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나는 교포다. 나는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이다. 한국에서 나는 한국어를 못한다. 한국에서 나는 진짜 한국인이 아니다.
>
> 그러니 내게 말해보라. 논의가 어디로 옮아가야 한다고? (pp. 30-31)

과거 트렌카는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 사회의 무지함과 백인우월주의로 철저하게 타자화되어 미국 사회의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미국의 미네소타 할로우(Harlow)는 유색인종이 매우 드문 백인 사회였고 그녀의 양부모 또한 독일계 백인들로 루터교를 믿는 기독교 집안의 사람들이었다. 미국에서 입양인으로 보낸 30여년은 트렌카를 양부모의 종교 신념에 따른 기계적 양육과 백인 남성의 스토킹으로 인종과 젠더의 타자가 겪는 소외와 폭력의 문제가 깊었다. 인종 간 타자화와 극단적인 폭력을 피해 한국으로 이주한 트렌카는 한국인 가족과 한국인의 외모를 가진 자신이 한국에서 당연히 수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의 단일민족주의는 능숙하게 모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트렌카를 그들과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은 그녀에게 또 다른 타국이 된다. 한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입양인이 형제자매가 모두 있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들이 재차 확인하고 싶어하던 트렌카의 신분이 교포이든 해외 입양인이든 그들 모두 한국인이지 않은가. 인종 간 입양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낸 트렌카는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문화와 언어 장벽에 부딪히며 해결책을 상실한 모습이다.

한국인의 외모에 원어민처럼 영어를 사용하는 트렌카는 서울에서 낯설고 기괴한 존재이다. 모국의 민족주의는 언어와 문화의 혼종인 해외 입양인을 또 다른 서발턴으로 차별한다. 민족주의는 문화 정체성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정치구조의 근간이기 때문이다(Huddart, 2006). 바바는 열린 상태의 정체성을 이상적으로 보며 민족의 정체성은 그 민족의 서사 담론에 빗대어 점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기만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종종 소수민 집단의 서사를 포함한 다른 모든 이야기를 압도하여 공식적이고 지배적인 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Huddart, 2006).

『덧 없는 환영들』에서 트렌카는 자신이 한국 사회에 섞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트렌카는 모국을

찾아왔지만 한민족의 서사로부터 낯선 이방인이 되어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이유를 주로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에서 찾는다. 결국 그녀는 해외 입양인이든 재미교포이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으로 내몰린다. 연희동과 이태원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트렌카는 한국의 외국인 게토와도 같은 이곳에 정착한다.

입양인을 해방시켜줄 수 있을 거라 유일하게 믿고 있었던 고국의 품은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오히려 입양인의 정체성을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국인의 외모에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다. "미국인이 백인과 동의어로 쓰이는 나라에서 백인이 될 능력도 없으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은 일종의 기형"(p. 110)이다. 한국에서의 자신을 "사람 얼굴을 한 물고기나 멍멍 짖는 닭처럼, 친근한 요소와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요소가 섞인 일종의 괴물"(110)로 바라본다. 그녀가 한국에서 만난 백인은 "친근함과 반감의 감정"을, 한국인이라는 존재는 "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일으키게 했다(p. 110).

그러면서도 한국인들이 트렌카에게 관심을 갖는 유일한 이유는 그녀가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수출이 일조한 경제발전을 딛고 한국인들은 이제 영어를 배워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한다. 그런 그들에게 한국인 외모를 가진 트렌카의 영어실력은 그들이 원하는 특별한 서사와 동기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트렌카를 낯선 존재로 만들어 버린 언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녀의 삶은 한국에서 철저한 소모품과 같다. 트렌카는 자신이 "형용사가 붙지 않은 명사,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대로의 명사, 그것이 실제로 가리키는 대상의 이름, 한결같고 진실되고, 단단하고 믿을 수 있는 것"(p. 36)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해외 입양인의 현실이다.

한편, 『덧 없는 환영들』은 해외로 보내진 한국인 입양인들의 서사를 통해 입양인의 고통을 기록하며 한국의 해외입양의 역사를 비판한다. 날조된 고아호적을 가지고 입양 보내진 아이들은 입양국에서도 시민권을 갖지 못한 채 무국적자로 방황을 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양을 보낸 나라도, 입양을 한 나라도 서로 책임지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입양인은 고립된 삶을 살아간다.

> 입양인의 정체성과 역사를 파괴한 것은 결코 개인 차원의 일이 아니었다. 그건 너무도 조직적이었다. 한국에서 다소 불운한 가족은 [...] 입양에 취약할 수 있었다. 우리의 한국 엄마들은 국제 입양이 장기 홈스테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가서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돌아오라고 했다. 입양이 우리와 같은 존재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지워버리는 것임을 그들은 몰랐다. 우리의 입양은 너무도 합법적인 절차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름, 우리의 생일,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정체성

> 을 빼앗는 것이었다. 그러고도 세상은 입양을 자비롭고 도덕적으로 바라보곤 했다. (p. 89)

해외 입양의 "송출국과 유입국은 정부 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양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문경희, 2015, p. 10).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와 가부장적 부계혈통주의가 기초였던 사회적 분위기가 한국에서 고아와 미혼모에게서 출생한 아이, 그리고 혼혈아동들의 해외입양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던 배경이다. 휘비네트(Hubinette)에 따르면, 해외입양의 대상이 된 고아나 소외계층의 아이들은 "없어도 좋은 불결한 국외자"(김현숙, 2011, p. 149 재인용)가 되어 적극적으로 해외로 보내졌다.

양부모로부터 건네 받는 입양 서류와 입양 기관에 확인한 고아 호적은 모두 허위로 조작되거나 가공된 기록이었다. 1972년생인 트렌카가 생후 6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되었는데 입양기관은 그녀가 네덜란드로 보내졌고 1976년에 네덜란드 시민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친부모와 가족이 있는 트렌카는 미혼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로 자신의 성씨는 고아원 직원의 이름을 땄으며 본적은 충남 온양이 아닌 전남 나주로 되어있었다. 완벽한 거짓이 합법적인 입양을 만들었고 그 정보는 입양인의 공식적인 신분증이 되어버렸다. 입양인의 역사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회고록에서 트렌카도 밝히고 있지만 이와 같은 트렌카의 입양서류의 문제는 운이 좋지 않았던 트렌카에게만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닌 한국에서 자신의 뿌리찾기를 하고 있는 수많은 입양인들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입양기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통역상의 실수로, 잘못된 아동의 이름은 친부모의 문제로, 잘못된 입양국 기록은 해당 시의 문제로 그 잘못을 돌렸다. 입양국과 입양부모 역시 자신들의 사생활 보호 문제로 입양서류의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에서 피해는 온전히 약자인 입양인의 몫이 되고 만다.

아동권리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은 생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착취와 폭력의 대상이 된다. 민은경(2021)은 입양특례법과 헤이그입양협약 이후 해외입양에 있어 최우선시되어야 할 문제는 아동의 권리라는 점에 주목하는데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합당한 기능은 물론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보존하고 지켜줄 당사자로 부모가 아닌 '당사국,' 즉 협약에 동참한 국가와 국가의 기관"으로 명시한다.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시 "국가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해외 입양 과정에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 하는 것으로 아동권리협약은 다분히 정치적 텍스트"(pp. 18-19)로 해석될 수 있다. 입양아동의 권리 개선을 위한 최근의 협약도 결국 아동, 부모, 국가의 관계 속에서 입양 아동의 피해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 잘못된 일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결국 그건 잘못이 아닌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입양인들에게 그냥 “이제는 넘어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결국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들추어 가족의 이산을 자선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p. 94)

트렌카는 해외입양인의 수를 대략 20만명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기록조차 없이 보내진 입양아동도 수없이 많을 것이기에 해외 입양의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녀는 이와 같은 해외 입양을 아동의 국외 추방이며 “일종의 ‘민간인 대량학살’”로 해석한다(p. 94). 입양인은 존재하는데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으며, 입양의 고통은 고스란히 죄 없는 입양인의 몫으로 돌리려는 시선들은 입양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소멸하게 만든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한국인 얼굴을 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유령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는 트렌카는 초현대적인 서울의 한복판에서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사투하는 모습이다. 고립과 외로움, 편견속에서 자신이 부숴져 파편이 되어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되뇌인다.

> 나는 말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밤에 지하철을 타고 겹겹이 살아가는 2천만 명의 대도시를 누비고 다닌다. [...] 어느 때는 내 다리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다리가 내 다리를 나누는 모습, 유리문에 비친 나의 유령 같은 모습, 크고 빈 사무실 건물의 형광등 야간 조명이 내 가슴 위에서 번쩍이는 모습을 보며 서있기도 한다. 검은 양복에 흰 셔츠를 입은 샐러리맨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구두닦이도 돌아가고. [...] 회사 주차장의 세차 아줌마들은 걸레를 짜서 말리기 위해 걸어두었다. 이웃한 사무실 건물 꼭대기에는 곤충들이 옥상 정원의 꽃과 풀의 수분을 마쳤다. 이 초현대적인 나라에도 그와 같은 연결의 생태가 작동하고 있다. [...] 그리고 1년 전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린 입양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길을 잃고 외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여러 번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살고 싶다. (p. 95)

또한, 트렌카는 한국의 다문화주의의와 초국가주의를 비판하며 트렌카 자신 역시 실패한 코스모폴리탄으로 생각한다. 한국인들이 정의하는 다문화주의는 모두가 최대한 한국인처럼 보이게 하는 것(p. 105)이라며 초현대화된 오늘날에도 단일민족주의가 남아 있음을 지적한다.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하지만 자신과 같은 입양인을 재미교포, 외국인 신부, 이주노동자와 뒤섞어 이해하는 한국식 다문화 인식을 비판한다. 또한, 초국가주의 비전을 빌미로 성공한 유학생이 되기 위해 영어와 미국의 문화를 맹신하며 가족이 분리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트렌카는 『덧 없는 환영들』을 통해 자신과 같이 성인이 되어 모국으로 돌

아와 뿌리 찾기를 하며 현실을 재확인하는 입양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그녀의 주변에는 다양한 국적과 서로 다른 입양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입양인들이 있으며 기지촌 여성에게서 출생한 혼혈인도 있다. 백인 미군과 한국인 기지촌 여성 사이의 혼혈로 태아난 이종격투기선수 재달(Jae-Dal), 트렌카의 프랑스 입양인 연인, 나쁜 도미니끄(Bad Dominique)가 있다. 그들이 가진 출생과 성장 배경은 그들을 초국가 입양인 공동체로 구성한다. 트렌카는 그들과 함께 'TRACK'(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을 결성해 자신과 주변 입양인들의 피해 사례를 알려 입양특례법과 같은 성과를 낸다.

트렌카는 개인의 입양사를 글쓰기를 통해 폭력을 비폭력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입양인 커뮤니티의 형성을 통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한다. 이와 같이, 해외 입양인들이 정체성을 재확립해 나가는 것에 대해 김엘리나(2015)는 "과격하게 흩어지고 비영토화되었던 사람들은 국가 간의 공간을 재영토화함으로써 새로운 디아스포라 한국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한다(p. 167). 특히, 트렌카는 나쁜 도미니끄를 통해 한국에서의 입양인 정체성을 재구성하게 된다. 나쁜 도미니끄는 갓난아기때 부모와 신촌에서 살았다가 삼십 년 뒤에 신촌으로 다시 돌아온 입양인이다. 한국에 돌아온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부랑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며, 술과 폭력에 방치되어 버린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구타로 피가 솟구치는 상처에도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다. 그는 어차피 있던 흉터에 하나 더 보태지는 것이고 오히려 경찰과 좀 더 가까워졌다고 말한다. 헐벗은 도미니끄는 추운 겨울에도 목도리와 겨울 코트를 다른 입양인에게 내어 주고, 새로 생긴 휴대폰도 원하는 다른 입양인에게 주고 만다. 그는 트렌카에게 "춥긴 해도 왠지 강해진 기분이 들거든"(p. 123)이라고 말하며 한국사회에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동화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에게 입양은 분명히 자신의 몸과 정신을 조각나게 만들어 그 어느 곳에서도 정착할 수 없도록 비영토화시켰지만, 입양인으로 돌아온 고국에서 그는 자신의 입양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 자신이 살아온 역사가 곧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그는 입양의 과거를 피하지 않고 스스로 영토화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인다. 트렌카 역시 처음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생모의 나라라는 이유, 자신은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전작인 『피의 언어』를 통해 밝히듯 고국에 대한 정서적 향수, 모성에 대한 본능적인 이끌림은 물론 미국에서 겪은 인종차별과 백인 남성 스토커 사건만으로도 혈육이 있는 한국으로의 이주는 간절한 바람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정착을 결심한 트렌카에게 생모와 친생 가족을 만난 흥분이나 여행지를 방문한 설렘은 필요하지 않다. 이제 그녀에게는 한국을 자신만의 영토로 수용하고 귀환한 입양인의 정체성을 뿌리내리는데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바바가 문화 간극의 지대에서 다양한 혼성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그 가능성으로 마이너리티의 존재의 이유를 확인한 것처럼 『덧 없는 환영들』에서 재현되는 한국과 트렌카 사이에서 재현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도기의 기다림일 것이다.

한편, 앞서 『덧 없는 환영들』을 대학생의 깊이 있는 영어 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로 제안했다. 문학 텍스트를 읽으며 학습자들은 문맥을 통해 연어(collocation)의 이해와 문해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다. 단순한 어휘중심의 반복 학습을 지양하며 작가의 문학세계와 텍스트의 내용을 읽고, 심층적으로 토론하면서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학습에서 경험하지 못한 깊이 있는 비판 능력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그것을 자신의 삶에 반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게 된다.

방법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영어 독해능력과 이해력의 편차를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해석 중심의 문학 수업은 이제 학습자들의 다양한 세계관 확장에 흥미로운 학습법이 아닐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도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콘텐츠를 다양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와 생성형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으로 순식간에 확인할 수 있는 요즘 문학 텍스트를 해석중심으로 지도하는 교수법은 학생들을 문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문학 텍스트 수업에서는 '장 분석' 중심의 학습법이 효율적일 것이다. 장 단위의 주제 파악을 주요 학습목표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문장들을 선별하여 깊이 있게 파악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 텍스트를 읽는 많은 강의에서 여전히 영미비평가의 작품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영문학에서 영어는 그들의 언어이고 그들의 경험과 정신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해석과 이해를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해석에 의지해서는 안된다. 영미소설을 배우는 학생들의 독창적인 해석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최재석, 2005).

Ⅳ. 결론 및 제언

『덧 없는 환영들』은 러시아를 떠나 유랑의 세월을 보냈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프로코피예프를 표현한 곡의 제목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떠돌아 다니며 어느 공동체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해외 입양인의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트렌카 개인의 자화상이기도 한 『덧 없는 환영들』은 모국으로 돌아온 입양인 공동체, 나아가 한국 사회의 극단의 마이너리티의 실상을 들려주는 공간이다. 『덧 없는 환영들』은 한 입양인 여성의 개인적 회고록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0 만명의 입양인의 과거이자 현재이다.

트렌카에게 서울은 해외 입양 디아스포라로부터 진정한 초국가 코스모폴리탄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험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한국으로 이주를 결심하면서 트렌카는 미국에서 겪었던 수많은 인종차별과 스토킹 폭력 등으로부터 해방되

어 어머니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언어, 문화의 차이로 그녀는 역차별의 감정을 감당해야 했으며 주변의 귀환한 입양인들을 바라보며 생의 또다른 과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돌아온 해외 입양인 여성으로 지독하게 고독해 보이면서도 다양한 인간 군상들과의 관계를 통해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려는 희망을 보인다. 자신에게는 자조적으로 보일만큼 객관적이고 비판적이지만 트렌카는 해외 입양인들을 위해 행동하는 용기를 보인다. 이처럼 서울은 그녀에게 새로운 연대와 관계를 통해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 나가는 생존의 장이다. 입양의 디아스포라는 이제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코스모폴리탄으로 거듭나려는 몸부림을 하고 있다.

또한 『덧 없는 환영들』은 한국의 입양사를 재기억하는 공간이다. 해외 입양은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망각해서는 안 되는 기억이다. 한국의 아픈 기억이 된 해외 입양사를 재기억하려는 노력을 통해 부끄러운 죄책감은 돌봄과 배려, 인간애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트렌카의 『덧 없는 환영들』을 네러티브 분석을 중심으로 작가이자 화자인 트렌카의 해외 입양인 인생의 굴곡을 분석하는데 집중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덧 없는 환영들』은 초국가시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미래 공동체를 위한 교육적 영감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텍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학 강의와 다문화 강의를 통해 교육적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트렌카의 회고록은 다양한 갈래의 소수작가 영문학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트렌카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초국가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우리의 미래 공동체 비전에 대한 통찰의 토대가 될 것이다.

한편, 다문화 영어 교육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가속화, 세분화 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기까지 영어교육을 통한 다문화 학습의 목표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영어 교육은 그 목표와 내용이 다문화의 수용을 기본으로 하며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타문화와 타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에 다문화 교육에 적절하다(주미란, 박성만, 2019). EFL 교육에서 문화를 배제한 영어 교육은 불가능하며 제2언어의 습득은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제2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Brown, 2000). 우리 나라에서 다양한 갈래의 다문화의 양상을 보이는 문학 텍스트를 다루는 다문화 영어 교육은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교육적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학습자들이 다문화 세계와의 상호 공존의 구성원이자 글로벌 역량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어와 문화의 융복합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교수법과 교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엘리나. (2015). 상실에 대한 기억－해외로 입양된 한국인들의 한국인 됨. 캐슬린 자숙 버퀴스트, 토비아스 허비네트, 크리스티 브라이언, 김동수, 배태순, 김 엘리나, 김호수 (편), 유진월 역, *한국 해외 입양: 초국가적 아동 양육 실험과 분투하는 입양 서사 50년* (pp. 159-178). 뿌리의집.

김종용. (2023, 5. 16.). '법원 불법 해외입양' 홀트아동복지회 1억원 배상.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5/16/K3UV3VPRJRGWPK57X4VFQGGW4Y

김준영. (2022, 1. 23.). 해외입양 세계 7위에서 3위 반등. *세계일보*. https://m.segye.com/view/20220122506653

김현숙. (2011). 초국가적 입양과 탈경계적 정체성-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 *영어영문학*, *57*(1), 147-170.

문경희. (2015). 여성과 아동, 국가 간 입양의 정치경제. *페미니즘연구*, *15*(1), 3-50.

민은경. (2021).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와 애도할 권리: 해외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읽기. *여성문학연구*, (53), 10-41. https://doi.org/10.15686/fkl.2021..53.10

이소희. (2015). 입양 다큐멘터리 <일인칭 복수>(First Person Plural)에 나타난 기억, 상실, 정체. *영어영문학*, *20*(1), 199-226.

이일수. (2019). 입양 체험기 『덧없는 환영들』에서 읽는 "고유한 장소". *현대영미소설*, *26*(3), 129-148. https://doi.org/10.22909/smf.2019.26.3.006

주미란, 박성만. (2019). 영어학습과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대학생 중심. *영어어문교육, 25*(2), 113-132.

최재석. (2005). 한국 대학에서 영미소설 가르치기. *영어어문교육, 11*(1), 1-20.

한상택. (2001). 영어능력 개발을 위한 문학텍스트 활용방안. *영어어문교육, 7*(1), 1-30.

Brown, D. (2000). *Principle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ongman.

Huddart, D. (2006). *Homi K. Bhabha*. Routledge.

Kalra, V. S., Kaur, R., & Hutnyk, J. (2014). *Diaspora & hybridity* (Young-joo. Jeong, Trans.). ECO-LIVERES.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Kristeva, J. (1994). *Strangers to ourselves*. Columbia University Press.

Trenka, J. J. (2005). *The Language of blood*. Graywolf Press.

Trenka, J. J. (2009). *Fugitive visions*. Graywolf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Tertiary

차민영(교수)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영어교과
31116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사회과학관 236호
Email: mycha@dankook.ac.kr

Received: October 15, 2023
Reviewed: December 6, 2023
Revised version received: December 21, 2023